

지역 소식통

고창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고창군이 전라북도 주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전라북도 전체 총 26건의 접수된 우수사례 중 1, 2차 심사 및 온라인 심사를 거쳐 6건이 발표사례로 채택됐다.

고창군은 '치유문화도시 고창'으로 시군 부분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고창군의 '치유문화도시 고창'은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2년의 도전을 통해 제4차 범정부화 도시로 지정된 사업이다.

2023년부터 5년동안 국가예산 80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160억을 확보하여 고창의 고유문화 자산을 통해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성, 주민주도형 문화도시를 위한 12개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하서면, 상권르네상스 상가작은축제 23일 개최

2023년 하서 다시부흥 상권르네상스 상가작은축제(이하 상가작은축제)가 오는 23일 하서면 상가 시가지에서 개최된다. 상가 작은축제는 하서면 지역 상권의 중심지인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통해 활기찬 하서 재건을 목표로 하는 2023년 하서면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하서면은 상가·간판 정비, 가로변 꽃박스 설치로 시가지 재탄생과 함께 23일 개최되는 상가작은축제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다.

이날 행사에는 데코도마 만들기·DIY 와인잔 만들기·캐릭터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전자현악기 연주 공연, 페이스 톨렛돌리기를 통한 이윤권 증정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자 하서면장은 "활기찬 하서 재탄생을 위해 마련된 행사인만큼 하서면민과 하서면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며 "행복한 하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갯벌축제' 흥행 예고

내일 개막... 심원면 만들어촌체험마을 일원서 풍천장어 잡기 등 체험활동 준비돼

진흙이 잔뜩 묻어도 상관없는 험웃과 장화 맛소금을 들고 바다로 향한다. 민반의 준비를 마친 뒤 갯벌에 조심조심 들어가 구멍이 숭숭 한 곳에 맛소금을 뿌려주면 조개가 빠끔히 고개를 내민다. 모두 캐고 깨끗하게 씻은 후 라면에 잔뜩 넣어먹으면 천국의 맛이 따로 없다.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고창군 심원면 만들갯벌에서 열리는 '2023 고창갯벌축제'가 벌써부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고창의 갯벌은 지난달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고, 202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천혜의 환경을 가진 관광번지다.

고창갯벌축제위원회(위원장 김충)는 가치 있는 고창의 갯벌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갯벌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축제에선 갯벌로 들어가 바지락과 동죽을 캐는 '갯벌체험 활동', 고창의 대표 수산물인 풍천장어를 맨



손으로 잡는 미꾸라지 풍천장어 잡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들이 준비돼 있다.

먹거리 부분에서는 김부각, 동죽해물라면 등 고창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다채로운 수산물 특화 먹거리 코너와 고창의 대표 특산물인 풍천장어를 시식하고 현장구매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23일 개막식에는 인기 가수 흥

진영과 배일호, 미스터트롯2·불타는 트롯맨 출연가수 공연이 예정돼 있다.

김충 고창갯벌축제위원장은 "고창갯벌축제에서 풍성한 먹거리와 다채로운 체험활동으로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을 것"이라며 "2023 고창갯벌축제가 자랑스러운 고창갯벌과 고창 수산물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태하천'

고창군, 고창천 1억8000만원 투입 초화류 식재 · 유지관리 나서

풍요로운 고창의 젓줄 '고창천'을 활용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태하천이 만들어진다.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천은 고창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도심하천으로 고창군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매년 잡풀 제거, 시설물 정비 등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산책로를 중심으로 매년 빠르게 자라는 잡풀은 하천을 따라 걷는 주민들의 큰 불편 사항으로 매년 잡풀 제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 하천 경관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견고 싶은 하천을 제공하기 위해 우선 고창군은 지난 5월 초화류 식재에 나섰다.

사업비 1억8000만원을 투입해 고창천 약 1.8km 구간(아르미안 아파트~월곡 뉴타운)의 하천 법면과 하상에 꽃잔디 등 초화류 5종 관목류 등의 식재와 이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하천 경관개선의 일환으로 최근



개봉한 전통시장 인도교의 디자인 개선과 포토존 조성을 위한 게이트 조형물 설치를 완료했다.

포토존은 X형 인도교의 각 출입문에 설치되어 고창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소망·성공을 상징하는 게이트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SNS 인증장소로 기대된다.

고창군청 이광수 안전총괄과장은 "우천시 범람이 잦은 고창천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준설공사를 진행하고 초화류의 활착을 돕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범람 유실 방지를 목적으로 부지포도 함께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여름철 노인 건강·안전관리 총력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 폭염 피해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등

정읍시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지역 내 노인 안전관리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시는 태풍, 집중호우 등 하절기 풍수해에 대비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대상 시설은 장기요양기관 56개소, 노인요양시설 22개소, 노인여가시설 5개소 등 총 83개소다.

이번 점검에서는 하절기 풍수해·혹서기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위생관리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능보강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폭염피해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가족·이웃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사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취약노인 보호 관련 수행인력에게 여름철 건강관리 방법, 응급처치요령 등을 교육한다.

또 387곳의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고 필요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중 기능 기관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운영해 폭염 대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더불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만 1518명에 대해 폭염대비 건강관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부전화와 방문건강관리를 주 1~2회 실시해 건강관리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시설물 점검과 폭염대응 인력 투입, 노인일자리사업 특별관리 등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폭염에 대비해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생활보장·긴급지원 심의회' 개최

정읍시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는 이학수(정읍시장)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심의회에서는 정읍시 생활보장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보고 받고,

가족관계 해체와 보장비용징수 제외, 생활안정기금 회수불능분에 대한 정리보류 건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한부모가정 부정수급과 보장비용징수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했다.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심의회'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권리구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사항

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결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저소득 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위해 소외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환경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춰,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기센터, 콩 파종 후 초기 재배관리 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는 콩 파종 후 초기 재배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쌀 적정생산 대책으로 전라 작물직불제를 시행하면서, 올해 정읍시의 논콩 재배면적이 1064ha로 전년 대비 2.7배 늘어나는 등 식량작물 생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논콩 재배는 발종 재배와 달리 물관리가 핵심으로 논 특성상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뿌리 호흡이 나빠지고 습해를 받기 쉽다.

따라서 논 가장자리에 60cm 이상 깊게 배수로를 파주고, 두둑은 습해방지를 위해 25cm 이상으로 높은 이랑재배



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침수에 취약한 논은 비가 내리기 3일 전까지 파종을 마치는 것이 좋으며, 파종 후 논이 침수되면 입모율이 약 45% 이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읍, 폭염대비 저소득 취약계층 현장점검

부안읍(읍장 김창조)은 지난 19일부터 8월 말일까지 주 1회씩 부안읍 관내 공원과 공공화장실, 버스커뮤니티, 쪽방촌 등을 중심으로 부안읍 주민복지팀과 맞춤형 복지팀이 합동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위험지역 아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찰은 하절기를 맞아 노숙인 뿐만 아니라 폭염 및 식중독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 취약계층을 조기 발견하여 신속한 신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명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아울러 부안읍에서는 폭염을 대비하여 노숙인 뿐만 아니라 냉방이 열악한 가구에 냉방용품 전달하고,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에게 맞춤형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부안읍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 가구가 발생할 경우, 유관기관과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무더위 쉼터 이용을 권장하고, 긴급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